

치위생과 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

류혜검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Hae-Gyum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ae-Gyum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2640 Naeseo-eup, Masan Hoiwon-gu, Changwon, Korea 51211, Tel: +82-55-230-1389, Fax: +82-55-230-1444, E-mail: ryu8102@masan.ac.kr

Received: 25 February 2016; Revised: 23 June 2016; Accepted: 5 August 2016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35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nam from September to October 30, 2015.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5 items), employment stress (22 items) and job searching self-efficacy (27 items).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 program.

Results: The lower grade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education service quality. Those who were dissatisfied with major had higher schoolwork stress. Poor economic status had a relation to family stress. The employment stress has an effect on job motivation, self-esteem, job skill, and human relation skill.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reduce employment stres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at should be provide support of education environment control, opportunity of self-development on improve the self esteem and human relation skill, from freshman to broaden understanding of the majors, for the employment stress coping skill.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 employment stress, self-esteem, job searching efficacy

색인: 구직효능감, 자아존중감, 취업스트레스, 치위생과 학생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한 고용정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어,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 청년취업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고등교육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10년의 과도기를 거쳐 2012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업자의 개념을 포함하여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에서 전문대학의 전체취업률은 2014년 67.9%, 2015년 67.8%이었고, 주요대도시 전문대학 취업률의 경우 서울지역 2014년 졸업생 16,872명에 취업률 66.2%, 2015년 졸업생 16,582명에 취업률은 65.5%, 부산

지역 2014년 졸업생은 13,310명에 취업률 66.8%, 2015년 졸업생은 12,525명 취업률은 66.5% 대구지역 2014년 졸업생은 14,353명 취업률은 68.1%, 2015년 졸업생은 14,052명 취업률은 67.2% 경남지역 2014년 졸업생은 9,333명 취업률은 71.2%, 2015년 졸업생은 9,229명이고 취업률은 69.5%였다[1].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취업률 현황분석 자료에서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졸업생수의 감소와 취업률의 감소가 현저히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취업률 현황에서도 보건계열의 경우 2014년 졸업생 11,254명에 취업률 76.0%, 2015년 졸업생 11,236명에 취업률은 74.4%로 전공영역에서도 취업률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1].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각 분야 전문직업인의 수요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의 이념 추구 장소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봉사기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업인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취업이란 직업을 갖는다는 것으로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룬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2]. 오늘날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저성장과 고물가 등 국내 경제위기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구직활동과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직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구직자가 저절당할지 모르는 경험을 회피하거나 학습된 무력감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구직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20-30대 141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및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88.9%가 취업스트레스로 자존감, 자신감 상실, 의욕상실 등 심리적 변화를 경험했고, 그 중 15%는 조울증과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하였다[4].

김[5]은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복잡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6]은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취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스트레스는 지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건계열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고한 취업률 자료에 의하면, 2014년 76.0%, 2015년 74.4%로 다른 전공계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낮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1], 최근의 경기불황이나 경제위기를 감안해 볼 때 보건계열 중에서도 치위생과 학생역시 취업난을 비켜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학생과 관련된 취업스트레스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7], 김 등[8], 신[9], 오와 오[10]의 보건계열 학생과 관련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치위생과 학생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과 김[11]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김과 김[12]의 외모 및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 관련 연구, 김[13]의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다. 반면 치위생과 학생 대상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급변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학생들의 취업을 저하를 감안해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관련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남지역 M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학년별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1학년 80명, 2학년 80명, 3학년 90명에게 직접설문조사방법에 의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에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총 2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전공 만족도, 경제상태, 학업성적 관련 5문항, 취업스트레스 관련 22문항, 구직효능감 관련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란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최초의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14].

취업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측정법(Conel Medical Index: CMI)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신[7], 신[2], 김[13]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성격스트레스 9문항, 가족스트레스 5문항, 학교스트레스 4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으

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성격스트레스 Cronbach's $\alpha=0.925$, 가족스트레스 Cronbach's $\alpha=0.915$, 학교스트레스 Cronbach's $\alpha=0.859$, 학업스트레스 Cronbach's $\alpha=0.890$ 이며, 취업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954$ 로 나타났다.

2.2.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이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 구직활동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구직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15].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직효능감이다[16].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은 구직동기와 구직기술로 나누어진다.

구직동기에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구직동기란 실직이나 미취업상태에서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다.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또한 자기 자신이 성공할 만한 존재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존경 받을 만한 존재라고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3].

구직기술에는 경력유동화능력, 고용정보관리기술, 대인관계기술이 포함된다.

구직기술이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구직을 위한 구직방법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구직역량을 의미한다[17]. 경력유동화능력은 직업을 얻거나 유지 및 전환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서 작성, 의사소통능력 등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직업능력기술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정보관리기술은 다양한 구직방법들 중 자신의 인성적 특성과 개인적 성향을 고려할 줄 알고 이를 활용 가능한 구직방법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대인관계기술은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구직효능감은 전[18]과 신[2]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직동기와 구직기술로 나누어지고 구직동기에는 자아존중감 4문항, 자기효능감 6문항, 구직기술에는 경력유동화능력 7문항, 고용정보관리기술 7문항, 대인관계기술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구직효능감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구직동기 Cronbach's $\alpha=0.614$, 구직기술 Cronbach's $\alpha=0.859$, 구직효능감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868$ 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명목변수인 성별은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경력유동화능력, 대인관계기술, 고용정보기술로 나누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을 하였고,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98.7%, 학년은 3학년 36.0%,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7.0%, 경제상태는 중이 77.1%, 성적은 평균 B학점 이상이 50.8%로 높았다. <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3(1.3)
	Female	233(98.7)
Grade	1	74(31.4)
	2	77(32.6)
	3	85(36.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94(39.9)
	Normal	111(47.0)
	Dissatisfied	31(13.1)
Economic status	Good	5(2.1)
	Average	182(77.1)
	Poor	49(20.8)
Credits	$\geq A$	11(4.7)
	$\geq B$	120(50.8)
	$\leq C$	105(44.5)
Total		236(100.0)

2. 연구대상자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수준

연구대상자의 구직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08점으로 조사

되었다.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각 변수의 평균은 자아존중감이 2.85점, 자기효능감이 3.22점이었고,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각 변수의 평균은 경력유동화능력 3.27점, 고용정보관리기술 2.95점, 대인관계기술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기효능감과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경력유동화능력의 평균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의 전체평균은 2.27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성격스트레스 2.15점, 가족스트레스 2.23점, 학교스트레스 2.29점, 학업스트레스 2.55점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의 평균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학년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성격스트레스($p<0.05$)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업스트레스($p<0.001$)에서 만족인 집단에 비해 불만족인 집단이 스트레스가 높았고, 경제상태의 경우 가족스트레스($p<0.001$)에서 상 집단에 비해 중, 하 집단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cheffé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2.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level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Job searching efficacy	Job motivation	Self-esteem 2.85±0.43
		Self-efficacy 3.22±0.49
	Job skill	Career adopted a capability 3.27±0.51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2.95±0.60
		Human relation skills 2.96±0.49
		Total 3.08±0.37
Employment stress		Characteristic stress 2.15±0.75
		Family stress 2.23±0.87
		School stress 2.29±0.73
		Schoolwork stress 2.55±0.82
		Total 2.27±0.68

Table 3. Employment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Characteristics stress	Family stress	School stress	Schoolwork stress
Grade	1	2.27±0.71	2.33±0.81	2.27±0.72	2.65±0.78
	2	1.98±0.73	2.16±0.84	2.20±0.75	2.51±0.84
	3	2.21±0.79	2.22±0.94	2.39±0.73	2.49±0.84
		F=3.120, p=0.046	F=0.783, p=0.458	F=1.408, p=0.247	F=0.863, p=0.423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2.01±0.74	2.15±0.86	2.15±0.74	2.32 ^a ±0.81
	normal	2.23±0.73	2.29±0.88	2.39±0.69	2.66 ^{ab} ±0.77
	Dissatisfied	2.31±0.80	2.27±0.87	2.32±0.83	2.81 ^b ±0.89
		F=3.094, p=0.047	F=0.718, p=0.489	F=2.868, p=0.059	F=6.804, p=0.001
Economic status	Good	1.87±0.82	1.32 ^b ±0.46	1.95±0.72	1.95±0.94
	Average	2.17±0.75	2.13 ^a ±0.84	2.31±0.72	2.55±0.81
	Poor	2.10±0.76	2.71 ^a ±0.83	2.25±0.80	2.58±0.87
		F=0.523, p=0.593	F=12.369, p=0.001	F=0.660, p=0.518	F=1.363, p=0.258
Credits	≥ A	1.80±0.75	2.07±0.83	2.20±0.60	2.23±0.79
	≥ B	2.16±0.81	2.20±0.85	2.32±0.75	2.53±0.79
	≤ C	2.18±0.68	2.30±0.90	2.26±0.74	2.60±0.86
		F=1.238, p=0.292	F=0.570, p=0.566	F=0.216, p=0.806	F=1.088, p=0.338

*by t-test and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é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4.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	1										
x2	0.175**	1									
x3	-0.027	-0.086	1								
x4	-0.070	0.038	0.066	1							
x5	-0.187**	-0.067	-0.028	0.068	1						
x6	-0.091	0.012	0.138*	0.087	0.221**	1					
x7	0.254**	-0.032	0.040	-0.056	-0.048	-0.033	1				
x8	-0.262**	-0.166*	0.030	-0.010	0.256**	0.105	0.096	1			
x9	-0.276**	-0.185**	0.130*	0.023	0.277**	0.005	0.091	0.614**	1		
x10	-0.033	-0.181**	-0.018	0.097	0.175**	-0.038	0.029	0.427**	0.470**	1	
x11	0.193**	0.065	0.047	0.023	-0.009	0.084	0.113	0.044	0.076	0.128	1

x1: Employment stress, x2: Gender(1=female), x3: Grade, x4: Economic status, x5: Major satisfied, x6: Results, x7: Self-esteem, x8: Self-efficacy, x9: Career adopted a capability, x10: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x11: Human relation skills

*p-value by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

*p<0.05, **p<0.01

4. 각 변수들의 상관성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자아존중감($r=0.254$), 대인관계기술($r=0.193$), 여자($r=0.175$)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유동화능력($r=-0.276$), 자기효능감($r=-0.262$), 전공만족도($r=-0.187$)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위계적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Model 1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경제상태, 성적이 취업스트레스의 변량을 4.1% 설명하고 있으며, 여자($p<0.01$)의 경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Model 1에서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경력유동화능력, 고용정보관리기술, 대인관계기술을 추가로 회귀시킨 결과이며, 취업스트레스의 변량을 20.0% 설명하고 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은 1.888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p<0.001$), 경력유동화능력($p<0.01$), 고용정보관리기술($p<0.01$), 대인관계기술($p<0.01$) 그리고 여자($p<0.05$)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beta=0.247$)이 취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

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변수들로 대인관계기술($\beta=0.237$), 고용정보관리기술($\beta=0.189$), 경력유동화능력($\beta=-0.275$)순으로 그리고 여자($\beta=0.128$)인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삶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현 사회에서 취업의 여부가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인 독립의 여부를 결정짓고 있으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극심한 불안 및 긴장감 등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19].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에서 1학년(2.27 ± 0.71)이 2학년(1.98 ± 0.73)과 3학년(2.21 ± 0.7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김[13]의 연구와 비슷하였고, 신[9]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1학년의 경우 전공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진로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에서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13]의 연구에서도 성격과 학업스트레스에서 불만족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김과 김[12]의 연구에서도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취업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ing 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β	t	p-value*	B	S.E	β	t	p-value*
General characteristics	Invariable	1.774	0.467	3.801	0.000	0.926	0.632		1.465	0.144
	Gender(1=female)	1.084	0.389	2.785	0.006	0.775	0.383	0.128	2.021	0.045
	Grade	-0.007	0.054	-0.122	0.903	-0.002	0.050	-0.002	-0.039	0.969
	Economic status	-0.143	0.100	-0.093	0.152	-0.130	0.092	-0.084	-1.414	0.159
	Major satisfied	-0.089	0.047	-0.125	0.060	-0.042	0.044	-0.060	-0.953	0.342
Job searching efficacy	Results	-0.012	0.043	-0.019	0.773	-0.022	0.040	-0.034	-0.552	0.582
	Self-esteem					0.387	0.095	0.247	4.080	0.000
	Self-efficacy					-0.143	0.119	-0.102	-1.205	0.229
	Career adopted a capability					-0.372	0.122	-0.275	-3.044	0.003
	Employ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0.267	0.087	0.237	3.084	0.002
Job skill	Human relation skills					0.263	0.086	0.189	3.077	0.002
					F=2.979*, R ² =0.061, adjusted R ² =0.041					
						F=6.840***, R ² =0.234, adjusted R ² =0.200, Durbin-Watson=1.888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스트레스가 높았다. 일반적인 대학생 보다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신의 취업과 진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과 비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구직에 대한 갈등과 전공에 대한 학습동기 저하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전공에 대한 비전제시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상태에서는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스트레스에서 하(2.71 ± 0.83)와 중(2.13 ± 0.84)집단이 상(1.32 ± 0.46)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김과 김[12]의 연구에서도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김[13]의 연구에서도 용돈이 21만원 이상 보다 20만원 이하에서 가족스트레스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야 하는 부담, 졸업 후 진학에 대한 포부,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이유로 가족 간 불화 및 경제적 독립 등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효능감의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첫 번째로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았다. 신[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적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신[2]의 연구대상자는 4년제 대학교 학생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전공계열이나 학제가 달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거나 낮아지게 된다. 특히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해서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직업적 자아정체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2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걱정이나 근심이 적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하여 열등감이나 불확실감을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21].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와 치위생과 졸업생 수의 증가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은 힘들어지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과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현상의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상황들로 인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구직기술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인관계기술이 높을수록, 고용정보관

리기술이 높을수록,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직기술이란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직업능력기술의 활용[2]으로 대인관계기술과 고용정보관리기술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은 김[13]의 연구에서 구직준비행동수준이 증가 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하였다.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구직준비행동수준은 김[13]의 연구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는데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대인관계기술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고, 남과 다툰 후 화가 잘 풀리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구직효능감 전체 평균이 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기술의 평균이 2.96으로 낮았다. 고용정보관리기술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조사,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구직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으로 구직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로 고용정보관리기술의 평균이 2.95로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따라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직기술 행위가 시작되면 이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취업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추정해 본다.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경력유동화능력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는 신[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경력유동화능력에 해당하는 문항에는 직업에 대한 목표의식,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 장래직업에 대한 능력의 발전, 나에게 부족한 능력 파악 등의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 경력유동화능력 평균이 3.27로 구직효능감 전체평균 3.05 보다 높았다.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로방향을 결정하고 입학한 학생으로 보건계열 학생을 제외한 다른 전공계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유동화능력은 우위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경력유동화능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력서 준비, 구직신청서 작성, 효과적인 면접능력으로[2] 이러한 능력들이 부족하면 구직에 당면한 학생으로서는 당연히 취업스트레스는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학년에서는 1학년집단이 성격스트레스가 높았고,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성격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높았고, 경제상태가 중 이하인 집단의 경우 가족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구직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직효능감의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이었고, 다음은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대인관계기술, 고용정보관리기술, 경력유동화능력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과에서는 신입생부터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적 환경조성과 취업에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및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지역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표본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치위생과 학생으로 대표할 수 없으며, 설문문항이 많고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작성에 의한 정확성 결여로 인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취업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표본추출과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남지역 M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 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학년인 경우,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성격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2. 전공에 대하여 불만족인 경우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3. 경제상태가 중 이하인 경우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효능감의 각 변수는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대인관계기술, 고용정보관리기술, 경력유동화능력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과에서는 신입생부터 전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동기에 포함되는 자아존중감과 구직기술에 포함되는 대인관계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의 기회제공 및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5년도 마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References

1. Naver[Interne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ite 2016 June 22]. Available from: <http://edpolicy.kedi.re.kr/EpicTrend/Epic/EpicTrendVw.php?LstCary=B00802&id=27793&SOURCENAME2=&PageNum=&SearchWord=&SearchMode=&sdate=&edate=&check=&ContCate=&attachId=>.
2. Shin KS, Joe EJ. The effects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13; 3: 143-60.
3. Plumly L, Oliver J. The locus of control attribute and the job search process. *Psychological reports* 1987; 61: 907-10. <http://dx.doi.org/10.2466/pr0.1987.61.3.907>.
4. Naver[Internet]. Kyunghyang shinmun; [cite 2016 February 19].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226565&code.
5. Kim EY.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in relation to their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J Korean Counsel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19: 1079-100.
6. Bayram N, Bilgel N. The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ions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a group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008; 43(8): 667-72. <http://dx.doi.org/10.1007/s00127-008-0345-x>.
7.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 663-70.
8. Kim JU, Hong MH, Kim YS. Impact of stress on physical and temporomandibular joint symptoms in health-related majoring students. *J Korean Academic Industrial Society* 2013; 14(10): 4919-26.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0.4919>.
9. Shin SH.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 519-26.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4.519>.
10. Oh ES, Oh EH. A qualitative study on job-seek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healthcare. *J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Education* 2013; 14: 25-35.
11. Kim EJ, Kim JK.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coping type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08; 8: 65-77.
12. Kim SJ, Kim HH.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 75-84.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75>.
13. Robotham D, Julian C. Stress and the higher education

- student: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006; 30(2): 107-17. <http://dx.doi.org/10.1080/03098770600617513>.
14. Choi SH, Lee HY.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s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 13(12): 808-16.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08>.
15. Vinokur AD, Price RH, Caplan RD. From field experiments to program implementation; Assessing the potential outcomes of an experimental invention program for unemployed person. *Am J Community Psychol* 1991; 19: 543-62.
16. Judge TA, Jackson CL, Shaw JC, Scott BA, Rich, BL.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The integr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 of Applied Psychology* 2007; 92(1): 107-27. <http://dx.doi.org/10.1037/0021-9010.92.1.107>.
17. Boswell WR, Roehling MV, Boudreau JW. The role of personality,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 predicting job search among European ma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6; 40(4): 783-94. <http://dx.doi.org/10.1016/j.paid.2005.09.008>.
18. Jeon CY.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J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13; 1: 1-14.
19. Han GS, Seo KH.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o examine the role of resilience. *J Korean Psychological Assoc* 2015; 20(1): 235-51.
20. Brown C, George-Curran R, Smith ML.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 *J of Career Assessment* 2003; 11(4): 379-92. <http://dx.doi.org/10.1177/1069072703255834>.
21. Cohen SM. The effects of meridian exercise on anxiety, depression. *Holist Nurs Pract* 2004; 5(5): 102-19.